

온라인 강의 정리하기

* 빌 게이츠는 언제나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와 동의어이며 대부분의 경우 MS의 대표 S/W인 MS-DOS나 윈도와 함께 언급.

* 빌 게이츠의 특성을 기술사적 관점에서 파악하면 토마스 휴즈의 기술시스템 이론의 일부 개념을 차용하여 분석.

* 기술시스템 이론은 기술은 홀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개별기술들이 연결되고 사회적인 제도나 조직까지 연계되어 시스템을 이룬다는 것에 착안한 이론

* 토마스 휴즈는 기술의 개념을 인공물로 제한하지 않고 기술시스템적 접근을 발전시켜 기술적 요소와 그 외 외부 요소까지 모두 포괄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

* 기술시스템은 발명, 개발, 혁신, 성장, 경쟁 및 공고화, 모멘텀 획득이라는 발전 단계를 거치며 진화.

* 기술시스템은 시스템의 정치, 경제적 측면까지 포괄하며 기술적 시스템은 기술적 측면만을 지칭.

* 시스템 구축가는 단순한 발명가나 신기술 개발자가 아닌 융합적 관점에서 기술혁신의 전 과정을 이끄는 인물.

1. MS의 성장

빌 게이츠(Bill Gates): 1981년 IBM PC가 출시된 이후 20여년 동안 IT산업을 이끌어 온 인물

빌 게이츠에 대한 수 많은 수식어

: 천재 프로그래머, MS CEO, 경영의 귀재, 냉혹한 기업인, 세계 최고의 자선 사업가, 세계 최고의 부자 등

빌 게이츠와 MS의 성장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하나의 첨단 기술이 기술시스템을 형성하고 성장하고 공고화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형태로 기술혁신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MS-DOS, 행운아로서의 빌 게이츠

- 빌 게이츠(본명: 윌리엄 헨리 게이츠 3세)는 변호사 아버지를 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똑똑한 소년.

- 빌 게이츠는 1975년 친구 폴 앤런과 초기 PC를 위한 베이직(BASIC) 프로그램을 개발, 상업적 성공, 앤런과 MS를 창업, 1977년 하버드 법대를 자퇴.

- 1980년 IBM과 IBM PC의 운영체제(MS-DOS)를 계약, 향후 10년간 IBM과의 동맹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룩함. cf) 디지털 리서치의 CP/M, 컴퓨터 프로덕츠의 Q-DOS

MS의 성공 신화에는 IBM의 전략적 선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a) 애플Ⅱ와의 경쟁으로 MS와 서둘러 계약.
- b) PC 시장을 낮게 평가, MS-DOS의 독점권 포기.
- c) IBM PC의 오픈 아키텍처 전략 - 표준화 경쟁에 유리
- d) 저가 전략 - PC의 대중화

IBM PC의 성공으로 수 많은 호환 기종이 탄생, 이로 인해 정작 이익을 본 것은 MS. IBM PC의 시장 점유율은 낮아지고 호환 기종에 까지 운영체제를 팔 수 있었던 MS는 엄청난 시장 점유율로 기하급수적인 성공을 달성.

※ IBM의 오픈 아키텍처 전략의 최대 수혜자는 MS.

2. IBM의 그늘을 벗어나

Windows, 경영자로서의 빌 게이츠

MS-DOS의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MS는 아직까지 IBM에 비하면 중소기업.

MS와 IBM의 전략은 전혀 달랐지만 MS는 작은 기업이었기에 빌 게이츠는 IBM과의 안정적인 밀월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IBM으로부터의 자립을 준비 - 이중적인 전략 추구

IBM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MS는 다시 한번 성공신화를 달성.

ex. IBM의 OS/2 vs. MS의 Windows 3.0

Windows 3.0과 3.1의 연속 성공으로 MS는 자립 성공 → 운영체제 시장의 독점 기업으로 성장.

MS는 제록스에서 개발하고 1980년대 매킨토시에서 상업화 한 GUI (Graphic User Interface) 기반의 운영체제를 모방하여 윈도우즈를 개발 → 대성공

짝퉁이었던 윈도우즈의 성공 비결

- 1) MS-DOS와의 호환으로 기존 사용자들을 흡수
- 2) 다양한 사무용 프로그램들을 제공, 사용자층을 확대.
→ OS의 성패는 풍부한 응용프로그램에 있다는 걸 일찍이 간파.

1995년 윈도우 95의 개발로 기존 DOS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PC를 좀 더 친숙한 도구로 다가감.

ex) 마우스의 사용

이후 MS는 운영체제부터 응용프로그램까지 전 프로그램 시장을 석권한 거대 제국.

3. MS제국의 팽창

두 얼굴의 사나이, 빌 게이츠? cf) 냉혈한 독점기업가 vs. 자선사업가

냉혈한 독점기업가로서의 빌 게이츠: 넷스케이프의 내비게이터 vs.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내비게이터의 성공에 자극받은 MS는 뒤늦게 인터넷 시장에 참여. 후발 주자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MS는 윈도우 95의 독점력을 이용해 단숨에 상황을 역전.

ex.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끼어 팔기', 고립 정책

넷스케이프는 MS의 전방위적 공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4년만에 AOL에 인수됨 - MS라는 독점기업의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를 마련.

결국, MS의 반독점 소송으로 인한 MS의 총체적인 위기

: 적대적인 대중의 정서, 컴퓨터 업계의 공공의 적, 리눅스(Linux)의 부상 등

이후 자선사업가로 변신한 빌 게이츠는 ‘게이츠 & 멜린다 재단’을 설립, 엄청난 돈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 cf) 록펠러 재단

결국, MS의 권력을 이양시킴으로써 분사(分社)되지 않음.

이후 윈도우 98과 윈도우 2000의 개발로 안정적인 운영체제로 자리매김

ex. 윈도우95의 블루 스크린

→ 안정적인 운영체제가 나오기까지 15년이 걸렸으나 사용자들은 이러한 불완전함을 참고 사용함(소프트웨어 시장의 특성)

압도적인 영향력은 현재 진행형!

: 하드웨어 업체에 대한 표준 제시, X-box 등을 출시하면서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시장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음.

빌 게이츠의 성공 요인

a) 행운, 적절한 선택, 냉혹한 자본의 논리가 혼합됨.

b) 잔 다르크 신드롬: 신기술이 등장하면 과거의 경험이 별다른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젊은이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 (빌 게이츠는 S/W를 독자적인 상품으로 봄)

c) 최초와 최고에 집착하지 않은 유연함: 언제나 시장의 판도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통해 경제적 실익에 충실.

d) 복합적 지식인으로서의 빌 게이츠

: 빌 게이츠는 동시대의 다른 IT 천재들에 비해 뒤쳐진 사람, 즉 ‘생각의 속도’가 빠른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법조인 가문에서 자란 빌 게이츠는 자신이 파는 제품 이상의 것(법, 경영, 언론 등)을 볼 줄 아는 시각을 가짐.

→ 기술자, 경영자, 법조인의 마인드를 동시에 지님.

※ “사용되지 않는 기술은 결코 훌륭한 기술일 수 없다”

※ “첨단 제품의 개발이 첨단기업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 “기술의 성공에는 기술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끝.